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50장 좁은 문

『산상설교』 하권 제50장, 인쇄 269~282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13-14

❓ 예수를 믿는다는 건 원래 이렇게 좁고 힘든 길인가? 처음부터 그렇다고 알고 시작해야 하는가?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산상설교 전체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는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고 '적용'으로 넘어가신다고 짚는다. 주님은 청중을 세 가지 시험대에 올리신다. 좁은 문 앞의 선택, 열매로 하는 검증, 폭풍 앞의 집이다. 이 장은 그 첫 시험인 좁은 문을 다룬다. 그는 산상설교의 삶을 전체로 보면 한마디로 '좁다'고 말하고, 그 길은 처음 들어가는 문부터 좁다고 강조한다. 이 문 밖에 두고 가야 할 것은 군중, 세상의 길, 그리고 무엇보다 자아다. 길이 좁은 까닭은 이 삶이 가장 높은 삶이고 고난과 박해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용서만 떼어 내 전하는 안일한 전도를 경계하고, 끝까지 깨어서 셈을 해 보고 시작하라고 권면한다.

📜 절별 정리

📜 1. 설교는 끝났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산상설교의 큰 줄기를 다시 정리한다. 주님은 세상 어느 나라와도 다른 하늘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팔복에서 그 나라 백성의 성품을 그리셨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숨어 살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 남는다. 이어 주님은 그들의 의가 당대 최고의 종교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감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고 물으신다. 7장 나머지는 세 가지 시험으로 짜여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13~14절), 열매가 있는가(15~20절), 폭풍이 올 때 집이 서 있는가(24~27절)이다. 로이드 존스는 듣고 찬양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한다.

1. 7:13부터 산상설교는 권면과 적용으로 넘어간다
2.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탄이 아니라 실천이다
3. 세 시험: 좁은 문, 열매, 폭풍 앞의 집
4. 모든 시험은 심판의 빛 아래서 이루어진다
5. 산상설교는 윤리적 이상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 **마태복음 5:13-14**
> 세상을 떠나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 남는 백성
>
>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마태복음 5:20**
> 서기관·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야 하는 삶
>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마태복음 7:16-20**
> 두 번째 시험: 나무는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안다
>
>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설교는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 2. 적용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주님의 방식이 모든 설교의 모범이라고 말한다.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참된 설교가 아니다. 성경 구절을 펼쳐 설명하는 데서 멈추는 것도 참된 강해가 아니다. 이것은 산상설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의 방식이다. 그는 에베소서 4~5장을 예로 든다. 바울은 교리를 가르친 뒤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친절하고 부드러워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산상설교의 반복”이라고 부른다. 기독교 메시지는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1. 권면과 적용은 설교의 필수 부분이다
2. 구절 해설로 그치면 참된 강해가 아니다
3. 에베소서 4~5장도 같은 구조다
4.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특징이다

> **에베소서 4:25**
> 거짓말하지 말라 — 교리 뒤에 오는 실제 명령
>
>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하지 말라 — 일상에 닿는 적용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32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라 — 산상설교의 성품을 반복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 3. 전체를 보라 — 문부터 좁은 길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를 읽고 가장 먼저 할 일이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부 조항에 빠지거나 마음에 드는 특정 주제로 곁길로 새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전체를 보면 이 삶의 특징은 '협착함', 곧 폭이 좁고 한정된 삶이다. 주님은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 주신다. 왼쪽에는 큰 무리가 떼 지어 들어가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오른쪽에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지나가는 좁은 문이 있고, 그 뒤로 이어지는 길도 좁고 걷는 사람이 적다.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는 것은 길이 가다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입구부터 좁다는 점이다. 세상 지혜와 육신적 동기가 전도에 들어오면 이 좁은 문이 사라진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매력적이고 자극적이며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는 일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복음은 너무 정직해서 쉽다고 꾀거나 어려움을 나중에야 알려 주지 않는다. 대신 그 좁은 길에서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걷고 계신다.

1. 세부에 빠지지 말고 전체의 특징을 보라
2.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좁다'
3. 길은 가다가 좁아지지 않고 문부터 좁다
4. 쉬워 보이게 하는 전도는 세상 지혜다
5. 좁은 길에서 주님이 앞서 걸으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14

생명의 문과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기독교인의 삶은 시작부터 좁고 협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 4. 문 밖에 두고 갈 것 ① — 군중과 세상의 길

로이드 존스는 좁은 문을 지하철 개찰구 같은 회전식 십자문(턴스타일)에 비유한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지나가고, 몸에 이것저것 지니고는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문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걸러 낸다. 첫째로 두고 갈 것은 군중이다. 기독교 생활은 예외적이고 유별나서 지금까지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전통·습관·관습 같은 '이미 정해진 것'의 노예다. 그런데 복음에 눈뜬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살아 있는 영혼이고 내 삶에 책임을 진다"고 말하게 된다. 군중과 함께 내달리다가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언제나 기독교인이 되는 첫 단계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대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길', 곧 세속정신을 떠나는 일이다. 수도원주의의 근본 오류가 여기 있다. 몸은 사람들에게서 떠났지만 세속정신은 그대로 품고, 때로는 행실에까지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1. 좁은 문은 한 사람씩만 지나는 회전문이다
2. 기독교 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다
3. 첫 단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각이다
4. 대중을 떠나는 것과 세상의 길을 떠나는 것은 다르다

마태복음 7:13

많은 이가 넓은 문으로 가니 군중을 따르면 안 된다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갈라디아서 6:5

각자 자기 짐을 진다 — 개인의 책임을 자각함

>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 5. 문 밖에 두고 갈 것 ② — 자아

로이드 존스는 세상과 세상의 길을 떠나라는 요구를 산상설교의 실제 명령으로 보여준다. 눈에는 눈으로 갚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 리를 가자면 십 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이다. 본능은 되받아치고, 권리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므로 이 명령들은 저절로 따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하면 만사가 잘 된다”는 안일한 구원을 경고한다. 복음은 세상과의 근본적인 단절이다. 무엇보다 두고 가야 할 것은 자아, 곧 옛 아담이자 타락한 본성이다. 이 문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갈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은 밖에 남아야 한다. 산상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사람은 교만하게 태어나고 세상은 그 교만을 부추긴다. 로이드 존스는 자기 부인이 즐거움을 몇 가지 끊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권리 자체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일이다. 이 길이 유명해지고 칭찬받는 길이라 생각한다면 멈추고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그는 말한다.

1. 산상설교의 명령은 본능을 거스른다
2. “그대로 오라, 다 잘된다”는 안일한 구원이다
3.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핵심은 자아다
4. 자기 부인은 쾌락 절제가 아니라 권리의 포기다

마태복음 5:38-44

보복을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하라 — 본능과 정반대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마태복음 5:3

심령의 가난 — 교만을 문 밖에 두는 출발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에베소서 4:22

옛 사람을 벗으라 — 자아를 문 밖에 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태복음 7:1

비판하지 말라 — 자아가 죽어야 가능한 명령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12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 자기중심의 반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16:24

자기 부인이 언제나 맨 먼저 온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20

자기 부인의 참뜻: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좁은 문 입구에는 '여러분 자신을 밖에 남겨두시오.'란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 6. 왜 좁은가 — 가장 높은 삶이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삶이 좁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이 삶은 그리스도 자신과 같은 삶이고 인류가 아는 가장 숭고한 삶이라서 쉬울 수 없다. 그는 일반의보다 전문의가, 일반 직공보다 숙련 기술자가 늘 적다는 예를 든다. 어느 분야든 정상에 가까울수록 함께 오르는 사람은 적다. “찾는 자가 적다”는 말은 이 삶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둘째, 이 삶을 참되게 살면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 주님 자신이 그 성품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평을 듣고 싶어 하므로 미움과 비판은 괴롭다. 그래도 주님은 미리 경고하셨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오해받을 수 있다. 이 문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한 사람씩 들여보내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갈라짐이 실제로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갈라짐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미리 말해 주는 복음의 정직함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1. 가장 높은 삶이라서 좁고 어렵다

3. 참되게 살면 박해가 따른다
4. 가족에게도 오해받을 각오가 필요하다
5. 갈라짐은 물리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 **마태복음 5:11-12**
> 나 때문에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 — 박해는 정해진 몫
>
>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 **디모데후서 3:12**
>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
>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 **마태복음 10:34-36**
>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 — 한 사람씩 들어가는 문
>
>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7. 끝까지 좁은 길 — 셈을 해 보고 시작하라

로이드 존스는 처음만 어렵고 나중에는 쉬워진다는 생각이 신약성경에 대한 거짓된 이해라고 말한다. 이 땅에 있는 한 영적 원수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생명의 길에는 미묘한 유혹이 있다. 그러니 고삐를 늦추지 말고 한 걸음씩 살펴야 한다. 이 점에서 그는 전도의 문제를 다시 꺼낸다. 죄 용서를 기독교인의 삶 전체에서 떼어 내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참된 전도는 기독교인의 삶을 전체로 보여 준다. 주님은 셈해 보지 않고 망대를 짓다 멈춘 사람과, 적의 병력을 따져 보지 않고 싸우러

그분이 먼저 걸으신 좁은 가시밭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설교는 휴식과 안일의 꿈을 버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찬송으로 끝난다.

1.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다
2.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
3. 용서만 떼어 전하면 이단이다
4.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셈하라
5. 목적은 구원과 거룩, 그리스도를 따름이다

> **에베소서 6:12**
> 이생 내내 계속되는 영적 싸움
>
>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 **에베소서 5:15**
> 자세히 주의하며 한 걸음씩 걸으라
>
>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 **누가복음 14:28-30**
> 셈하지 않고 망대를 짓다 멈춘 사람
>
> 28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 **누가복음 14:31-32**
> 적의 세력을 따져 보지 않은 왕
>
>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32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디도서 2:14

주님은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을 만들러 오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좁은 문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입구로, 처음부터 한 사람씩 무언가를 버리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다.

권면과 적용

말씀의 진리를 듣는 사람의 실제 삶에 대 주고 행하라고 촉구하는 설교의 필수 부분이다.

세속(세속정신)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몸이 어디 있든 마음에 남을 수 있다.

수도원주의

세상을 물리적으로 떠나 따로 살면 거룩해진다고 보는 생각이다.

옛 사람(옛 아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 곧 자기중심의 자아다.

자기 부인

심령의 가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아는 마음으로, 교만의 반대다.

중생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하지 못한 본성이 좋아하는 것은 문 밖에 두어야 한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7:13부터 주님은 설교를 마치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신다. 답은 감탄이 아니라 실천이다.
- 산상설교의 삶을 전체로 보면 그 특징은 '좁음'이고, 그 좁음은 문에서부터 시작된다.
- 문 밖에 두고 갈 것은 군중, 세상의 길, 그리고 무엇보다 자아다.
- 이 길이 좁은 것은 가장 높은 삶이고 박해가 따르기 때문이며, 끝까지 좁다.
- 그러니 용서만 떼어 낸 복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보고, 셈을 해 본 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